

시편 저주시의 기독교 상담학적 이해와 적용방안

최수영(총신대 졸)

국문초록

시편은 예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찬양과 인간의 희로애락을 나타내는 다양한 시로 구성되어있다. 시편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이 전달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시편의 저주시를 해석함에 있어서의 신학적 문제점들은 역사적으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첫째, 시편의 저주시를 분노와 개인적 복수를 찬양하는 죄악스러운 말로 해석하는 오류이다. 둘째, 저주시를 구약의 하위 윤리로만 해석하는 오류이다. 셋째, 저주시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으로만 해석하는 오류이다.

이러한 저주시를 해석하는 신학적 문제점들은 저주시의 윤리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이어졌고, 저주시를 기독교 상담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때에도 문제가 된다. 첫째, 저주시를 개인의 분노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오류이다. 둘째, 저주시를 개인의 감정적 치유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편 저주시를 기독교 상담학적으로 고찰하여 저주시의 개혁주의 신학적 이해와 기독교 상담학에서의 적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첫째, 시편의 신학에 근거한 저주시의 영적 유익을 제공하여 기존의 해석적 오류를 해결하였다. 둘째, 저주시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해석과 적용방안을 제시하여 기존의 상담학적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주제어: 기독교 상담, 시편 저주시, 시편 69편, 고난, 시편 기도

*본 논문은 한국성경적상담학회에서 발간하는 「성경과 상담」 제15권(2016)에 수록된 "시편 저주시의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기독교 상담학적 고찰 - 69편을 중심으로"를 수정한 것입니다.

I. 서론

구약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은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편에는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희로애락을 나타내는 다양한 시가 있다.¹⁾ 시편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이 전달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시편의 저주시는 역사적으로 많은 오해를 받아왔고 심지어는 뛰어난 성경학자들조차 저주시를 열외로 취급하는 오류를 범해왔다.²⁾ 왜냐하면 시편의 저주시를 해석함에 있어 다음의 세 가지 신학적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시편의 저주시를 분노와 개인적 복수를 찬양하는 최악스러운 말로 해석하는 오류이다.³⁾ 이 해석에 의하면 시편의 저주시가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시편의 저주시가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다는 것을 배제하는 문제를 가진다.⁴⁾ 둘째, 저주시를 구약의 하위 윤리로만 해석하는 오류이다.⁵⁾ 이 해석에 의하면 저주시는 시대에 뒤떨어지며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저주시가 신약에 인용되었다는 사실, 특히 예수님께서 저주시를 인용하여 저주의 언어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문제가 된다.⁶⁾ 또한 구약과 신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으며 일관된 진리의 복음을 전달하는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문제를 가진다. 셋째, 저주시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으로만 해석하는 오류이다.⁷⁾ 이 해석에 따르면 저주시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다윗이 성령님에 의한 예언을 대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은 미완료적 미래형으로 나타나는데, 저주시는 짧은 단축 기원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은 서로 다른 동사 형태들을 잘못 읽은 결과이며, 저주시로 인해 생겨난 윤리적 문제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⁸⁾

위와 같이 저주시를 해석하는 신학적 문제점들은 성경에 기록된 저주의 윤리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이어졌고, 저주시를 상담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때에도 문제를 가진다. 저주시의 상담학적 해석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저주시를 개인의 분노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오류이다.⁹⁾ 이 경우 저주시를 개인적 복수심을 찬양하는 자기중심적 시각에서 해석하는 문제가 생기며, 지나치게 자신의 감정에 몰입하게 만들고 비성경적인 자기연민에 머물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저주시를 개인의 감정적 치유

1) 임용섭, 『구조와 핵심으로 보는 하이라이트 성경 2(인도자용)』, (서울: 넥서스 Cross, 2013), 104.

2) 글로리아타임스 편집부, “시편과 감정 - 시편은 우리의 감정과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다,” 종교적 감정, 글로리아타임스(2015년 7월 5일); 2015년 12월 1일 접속, 해당 사이트: <http://www.thegloriatimes.org/news/articlePrint.html?idxno=167>.

3) Daniel J. Estes, *Handbook on the Wisdom Books and Psalms*, 강성열 역, 『지혜서와 시편개론』,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7), 241.

4) 김정우, “시편의 저주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시편 69편에 대한 정경적 해석,” 신학지남사, 『신학지남』 제 66권(1999): 107.

5) Daniel J. Estes, *Handbook on the Wisdom Books and Psalms*, 241; 김정우, “시편의 저주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시편 69편에 대한 정경적 해석,” 108.

6) 김정우, “시편의 저주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시편 69편에 대한 정경적 해석,” 108.

7) Estes, 242; 김정우, “시편의 저주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시편 69편에 대한 정경적 해석,” 108.

8) Estes, 242; 김정우, “시편의 저주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시편 69편에 대한 정경적 해석,” 108.

9) Dominick D. Hankle, “The Therapeutic Implications of the Imprecatory Psalms in the Christian Counseling Setting,”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8, no.4(2010): 275; Matthew Henry, *Matthew Henry's Commentary*, 박문재 역, 『메튜헨리주석 시편』,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7), 808-809.

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류이다.¹⁰⁾ 이 경우 저주시에 표현된 분노의 표현들을 통해 느껴지는 카타르시스와 증오의 해소를 통해 자기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자유주의 신학자이자 구약 신학자인 브루그만은 저주시에 나타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이유는 억압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 결과로 나타난 자기사랑의 회복 때문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¹¹⁾ 브루그만의 주장은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기독교 상담의 관점에 맞지 않으며 자기사랑을 전제조건으로 말씀하는 성경적 근거도 없다. 또한 자기사랑을 성경적 관점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시편 저주시를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심리학으로 해석하는 문제를 가진다. 기독교 상담의 원리와 방법에 의하면 상담의 목적과 방법 모두 성경적이어야 한다. 기독교 상담의 원리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과 기도와 같은 성령의 자원들을 통하여 개인의 치유 뿐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의 자세를 회복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영적 성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²⁾

본 연구의 목적은 시편 저주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기독교 상담학의 이해와 적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시편 69편을 중심으로 다음의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시편의 신학과 저주시에 대한 정경적 해석을 제시하여 기존의 신학적 문제들을 해결한다. 둘째, 저주시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해석과 적용방안을 제시하여 기존의 상담학적 문제들을 해결한다.

II. 시편 저주시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 이해: 시편의 신학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들

시편 저주시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 이해는 시편의 신학에서 시작될 수 있다. 첫째, 시편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 자기 계시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응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¹³⁾ 하나님께서는 시인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허락하신 다음 실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을 해석하도록 인도하신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진리와 일치하는 신학적 증거로 가득 찬 시편은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기에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발견하고, 창조와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해주는 영적 유익을 제공한다.¹⁴⁾ 또한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각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반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는 유익이 있다.¹⁵⁾ 탄식시와 저주시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한 호소적인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단순한 낚두리나 자기연민이 아니라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신앙적으로 접근

10) Brent A. Strawn, "The Psalms and the Practice of Disclosure," in *From Whom No Secrets Are Hid*, Walter Brueggemann (M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4), xiii.

11) Walter Brueggemann, "The Rhetoric of Violence," in *From Whom No Secrets Are Hid*, Walter Brueggemann (M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4), 95.

12) 정정숙, "상담학적 치유에 관한 이해," 『인간문제에 대한 상담학적 치유』 (서울: 베다니, 2004): 17-24.

13) Charles Dyer & Eugene Merrill, *The Old Testament Explorer*, 『구약탐험』, 마영래 역, (서울: 디모데, 2001), 449.

14) Charles Dyer & Eugene Merrill, *The Old Testament Explorer*, 450.

15) Dyer & Merrill, 450.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¹⁶⁾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인 저주시는 개인적인 양심이 아니라 내면의 비통한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¹⁷⁾ 따라서 저주시는 기독교인들에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 접근을 함으로써 올바른 반응을 보여주는 모델을 제시한다.

둘째, 시편에서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신학적 목적은 하나님 중심 사상이다. 그래서 인간이 처한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탄식하는 시편들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존재가 인식되어 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신뢰가 담긴 고백이 나타나 있다.¹⁸⁾ 실제로 탄원시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는 신뢰의 고백으로 끝난다. 또한 우주를 탁월하게 통치하시는 여호와께서 땅 위의 그 백성 가운데,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 공정한 통치를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다.¹⁹⁾ 특히 참담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탄원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고, 참된 신앙을 증언하는 방편이 된다.²⁰⁾ 그래서 악인이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온 땅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해명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공정한 통치가 실현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의가 가져다 줄 승리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²¹⁾ 이러한 신뢰의 고백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더 강하게 주장하며 그들의 정직과 충성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소원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²²⁾ 이와 같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향하는 모습은 기독교인들에게 참된 신앙의 모델을 제시한다. 괴로운 하소연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통해 자기중심적으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자세를 배울 수 있다.²³⁾

셋째, 시편에서 나타난 절규들은 사람을 향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이다.²⁴⁾ 죽을 것만 같은 억울한 상황에서 자신의 누명을 벗겨주실 수 있는 분은, 자신을 진정으로 평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세상이나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외치는 모습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놀라운 집중력을 갖고 있는지 보여준다.²⁵⁾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악한 분노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토해내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신앙적 모범으로 보아야 한다.²⁶⁾ 자신이 복수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판단과 해결을 주님께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²⁷⁾ 분노가 복수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하는 모습은 기독교인들이 분노를 느낄 때 하나

16) 임용섭, 『구조와 핵심으로 보는 하이라이트 성경 2(인도자용)』, 105.

17) 임용섭, 107.

18) Dyer & Merrill, 450.

19) Allen P. Ross,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 Psalms*, 『시편』, 전광규 역, (서울: 두란노, 2001), 25.

20) 왕대일, 『시편사색, 시편 한 권으로 읽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124.

21) Allen P. Ross,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 Psalms*, 26.

22) Ross, 27.

23) Bernhard W. Anderson,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구약성서의 이해 III - 계약공동체의 쇄신』, 이성배 역, (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1984), 175.

24) 왕대일, 『시편사색, 시편 한 권으로 읽기』, 130-131.

25) 왕대일, 131.

26) 왕대일, 132.

27) 왕대일, 133.

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로 반응해야 한다는 도전을 준다.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준다.

존 칼빈은 시편에 “모든 감정이 다 거울처럼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은 “영혼의 모든 부분을 분석한 책”이라고 평가하였다.²⁸⁾ 구약학자 트렘퍼 롱맨 3세(Tremper Longman III)는 시편은 전인에 호소하고 전적인 반응을 요구하면서 우리의 지성을 훈련하고,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의지를 기도하며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변화의 힘으로 시편의 유익을 설명하였다.²⁹⁾ 이러한 시편의 신학적 특징들과 영적 유익들은 저주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저주시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영적으로 해롭거나 악영향을 끼친다는 잘못된 신학적 해석은 시편의 신학, 특히 탄원시의 특성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하나님 중심 사상과 하나님 중심의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III. 시편 저주시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이해와 적용방안

앞서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편은 여러 가지 영적 유익들을 제공한다. 그러나 상담 현장에서 시편은, 특히 저주시는 유익하기도 하지만 종종 상담자나 피상담자에 의해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³⁰⁾ 왜냐하면 모든 상담자는 신학자가 아니고, 피상담자도 저주시를 해석함에 있어 적합한 신학적 이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저주시를 근거로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은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³¹⁾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혁주의 신학에 기초한 기독교 상담으로 저주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고난의 신학에서 출발할 수 있다.

1. 고난의 신학을 통한 저주시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이해와 적용방안

미국의 대표적인 성경적 상담자 에드 웰치는 고난의 원인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제시하면서 고난의 신학을 설명한다. 웰치는 고난의 원인을 타인, 나, 아담, 사탄, 하나님으로 정리하였는데 이것은 고난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고난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³²⁾ 웰치가 제시한 고난의 원인은 시편 69편에 나타난 어려움의 원인들과도 연결될 수 있다. 다윗도 “까닭 없이 부당하게”(4절) 원수들, 즉 타인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고, 자신의 “우매함”과 “죄”(5절)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이 자신의 죄와 무관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비방하는”(9절) 자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적 세력이 그를 어렵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기 때문에(26절) 어려움을 당했

28) H. Lockyer, "In Wonder of the Psalms," Christianity Today 28(March 2, 1984): 76; Tremper Longman III, *How to Read the Psalms*, 한화룡 역, 『어떻게 시편을 읽을 것인가?』, (서울: IVP, 1989), 15에서 재인용.

29) Tremper Longman III, *How to Read the Psalms*, 15.

30) Dominick D. Hankle, "The Therapeutic Implications of the Imprecatory Psalms in the Christian Counseling Setting," 275.

31) Hankle, 275.

32) Edward T. Welch, "Exalting Pain? Ignoring Pain? What do we do with Suffering?"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2, no.3(1994): 6-9.

다고 말하고 있다. 고난이 단순히 하나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죄를 포함한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고난의 신학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고난당하는 자들을 기독교 상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네 가지 원칙들을 제공한다. 첫째, 하나님께 고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립되고 외로움을 느낀다.³³⁾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고난을 당했을 때 시편 저주시에서의 다윗처럼 애절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보다는 억압하고, 기도하는 것조차 막히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시편 저주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피곤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큰 고난을 경험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로 어려운 마음의 감정들을 하나님을 향해 쏟아내야 한다.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피상담자의 고난에 대한 상담은 그들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비로소 시작된다. 기독교 상담에서는 최소한 3명이 상담에 임한다고 본다.³⁴⁾ 상담자, 피상담자 그리고 성령님이다. 따라서 상담에서 피상담자가 상담자에게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독교 상담자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문에서 언급했던 비성경적인 자기감정예의 몰입과 자기연민의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과 상담자에게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해결될 수 있다.

둘째, 피해자(victim)로써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다. 기독교 상담자들은 피상담자의 피해의식에 공감하기를 주저할 때가 종종 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blame-shifting)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자기연민이나 복수심을 정당화하여 자신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에게 자신이 당했던 똑같은 피해가 돌아가도록 바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고난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은 고난에 대한 해결책을 분명히 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시편 저주시는 앞서 얘기한대로 고난의 원인을 균형 있게 설명하고, 피해자로써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69편 13절; 16-17; 19절). 우리가 피해를 당할 만한 일을 결코 한 적이 없다는 사실(69편 4절)은 피해자로써의 감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기 보다는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을 인내로 견뎌야 하는 이유로 삼아야 한다.³⁵⁾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³⁶⁾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살면서 다윗처럼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본문에서 언급했던 분노의 정당화 문제는 저주시가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이며, 하나님의 종으로써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는 원인을 제공해줌으로써 해결된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고난을 당한 기독교 피상담자를 상담할 때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자신이 이렇게 억울하게 힘든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나?, 왜 자신을 외면하시고 자신의 고통에 대해 침묵하셨나? 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고난으로부터 면제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33) Edward T. Welch, "Exalting Pain? Ignoring Pain? What do we do with Suffering?" 9.

34) 정정숙, "상담학적 치유에 관한 이해," 23-31.

35) Matthew Henry, *Matthew Henry's Commentary*, 박문재 역, 『매튜헨리주석 시편』,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7), 808-809.

36) Matthew Henry, *Matthew Henry's Commentary*, 809.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왜(why) 고난당해야 하는지 묻기 보다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누구(who)를 향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다.³⁷⁾ 이것은 69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진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호소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을 간구하며 원수들을 향한 분노와 복수를 표현하지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고난이 힘들면 힘들수록 자신의 처지나 감정보다는 하나님께 더 몰입하는 모범을 보인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통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죄 없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해하신다는 근거가 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자체가 고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된다.³⁸⁾ 이는 다윗이 69편에서 아직 그의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거나 원수들이 그들의 악행에 걸맞은 심판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9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서도 발견된다. 다윗은 여전히 “가난하고 슬픈 (29절)”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는”(32절)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소생하게”(32절) 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써의 정체성을 다시 밝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거기서 살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이고 미래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언약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상담에서 고난의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와 공동체적 회복을 위한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넷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라는 것이다. 앞서 고난의 원인들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큰 그림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우리의 기도와 신음소리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윗은 69편을 하나님을 부르면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1절에 보면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영혼은 히브리어 ‘네피쉬’를 사용하고 있으며 오늘 날 ‘목’으로 번역하고 있어 물이 목에까지 올라온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협에 처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³⁹⁾ 이러한 상황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악을 파멸하시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더욱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⁴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69편 22절에서 28절까지의 저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찬송을 열납하시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거룩한 기쁨과 찬송으로 69편의 끝을 맺는 것이다.⁴¹⁾ 다윗의 견고한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다(32-33절).⁴²⁾ 기독교 상담자가 먼저 고난의 신학과 저주시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 해석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만 다윗처럼 피상담자에게 고난에 대해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2. 저주시에 나타난 기도예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적용방안

37) Welch, 12.

38) Welch, 12.

39) (단어 풀이를 참고하였다.) 아가페 굿모닝 스터디 바이블, (서울: 아가페출판사, 2005), 852.

40) Welch, 14.

41) Henry, 824.

42) Henry, 825.

시편에 나타난 몸부림, 신뢰, 당혹감, 슬픔, 분노 등은 피상담자의 고난과 감정의 공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상담자에게 상담 자료로 엄청난 호소력을 가진다. 아담스는 저주시가 "개인적인 보복을 위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변영 하도록 악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의 외침"이라고 설명했다.⁴³⁾ 그러면서 그는 기독교인들이 저주시로 기도할 수 있는 3가지 원리를 제공했다.⁴⁴⁾ 첫째,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열망이어야 한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실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계속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각오도 포함된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기도여야 한다. 저주시에 나타난 분노는 단순히 개인의 경험이나 이기심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생긴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향한 분노에 의해 저주시처럼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가난하고 슬픈 자들이 부르짖을 때 기꺼이 응답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해 갇힌 자들을 결코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에 근거하며 기도할 수 있다.⁴⁵⁾ 셋째, 기도는 회심을 포함해야 한다.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왕국을 세우고자 하나님을 초빙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적을 하나님의 적으로 부르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개인의 분노를 표출하는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행위가 되어서만은 안 된다는 것이다. 기도의 성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일치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서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자들의 회심을 위해 간구해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 제기한 저주시의 상담학적 적용이 개인의 감정적 치유와 심리적 카타르시스로 치우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담스가 제시한 저주시로 기도할 수 있는 3가지 원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자는 서론에서 시편 저주시에 대한 신학적 해석과 상담학적 적용이 가진 문제들을 제기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우선 시편 저주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연구하기 위해 첫째, 시편의 신학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시편 저주시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이해와 적용방안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첫째, 웰치의 고난의 신학을 통한 저주시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이해와 적용방안을 제시하였고, 둘째, 아담스의 저서 '평화의 왕의 전쟁시'를 바탕으로 저주시에 나타난 기도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시편 저주시는 가장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기도의 특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 고난의 무게는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가볍다.⁴⁶⁾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해 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43) 스미스, 200.

44) 스미스, 200.

45) Henry, 825.

46) Welch, 16.

목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⁴⁷⁾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시편 저주시 전체에 대한 보다 풍성한 신학적 해석과 기독교 상담학적 적용으로 확장되기를 소망한다.

47) Welch, 17.

참고문헌

- 글로리아타임스 편집부. “시편과 감정 - 시편은 우리의 감정과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다.”
종교적 감정. 글로리아타임스(2015년 7월 5일); 2015년 12월 1일 접속. 해당 싸이트: <http://www.thegloriatimes.org/news/articlePrint.html?idxno=167>.
- 김광열. 『교회를 위한 개혁신학 서론』. 서울: 소망플러스, 2014.
- 김인환. “구속사에 나타난 저주의 역할 (1) - 신 32:19-25을 중심으로.” 신학지남사.
「신학지남」 제50권(1983): 143-159.
- 김정우. “시편의 저주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시편 69편에 대한 정경적 해석.”
신학지남사. 「신학지남」 제66권(1999): 102-122.
- 김정우. 『시편주석II』.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5.
- 아가페 굿모닝 스터디 바이블. 서울: 아가페출판사, 2005.
- 왕대일. 『시편사색, 시편 한 권으로 읽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 임용섭. 『구조와 핵심으로 보는 하이라이트 성경 2(인도자용)』. 서울: 넥서스 Cross, 2013.
- 원스턴 스미스. “제임스 아담스의 <평화의 왕의 전쟁시>.” 두란노서원. 「목회와신학」. 통권111호(1998): 199-202.
- 정정숙. “상담학적 치유에 관한 이해.” 『인간문제에 대한 상담학적 치유』. (서울: 베다니, 2004): 17-31.
- Anderson, Bernhard W.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구약성서의 이해 III - 계약공동체의 쇄신』. 이성배 역. 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1984.
- Blumenthal, David R. "Liturgies of Anger." *Cross Currents - New York*- 52, no. 2(2002): 178-199.
- Brueggemann, Walter. "The Rhetoric of Violence." In *From Whom No Secrets Are Hid*. (M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4), 94-99.
- Dyer, Charles & Merrill, Eugene. *The Old Testament Explorer*. 『구약탐험』. 마영례 역. 서울: 디모데, 2001.
- Estes, Daniel J. *Handbook on the Wisdom Books and Psalms*. 강성열 역. 『지혜서와 시편개론』.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7.
- Hankle, Dominick D. "The Therapeutic Implications of the Imprecatory Psalms in the Christian Counseling Setting."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8, no. 4(2010): 275-280.
- Henry, Matthew. *Matthew Henry's Commentary*. 박문재 역. 『매튜헨리주석 시편I』.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7.
- Longman III, Tremper. *How to Read the Psalms*. 한화룡 역. 『어떻게 시편을 읽을 것인가?』. 서울: IVP, 1989.
- Ross, Allen P.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 Psalms*. 『시편』. 전광규 역. 서울: 두란노, 2001.
- Strawn, Brent A. "The Psalms and the Practice of Disclosure." In *From Whom No Secrets Are Hid*, Walter Brueggemann (M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4), xiii-xxiv.

Walton, John H., Matthews, Victor H, & Chavalas Mark W. *The IVP Bible Background Commentary*. 『IVP 성경배경주석-구약』. IVP 역. 서울: IVP, 2001.

Welch, Edward T. "Exalting Pain? Ignoring Pain? What do we do with Suffering?"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2, no. 3(1994): 4-19.